Bilik Korea
Konnect ASEAN

Ha*ck*ng Dom*est*cit*

Profil Seniman

YAYASAN BIENNALE YOGYAKARTA

ROOTS <> ROUTES

BJ2021

KONNECT ASEAN
EMBRACE UNITY IN DIVERSITY

ASEAN-KOREA COOPERATION FUND
Collaborate. Communicate. Coexist.

ASEAN FOUNDATION

@biennalejogja @biennalejogja Biennale Jogja Biennale Jogja www.biennalejogja.org/

Siren Eun Young Jeung

Lahir pada tahun 1974 di Incheon, Korea Selatan, Siren Eun Young Jeung saat ini tinggal dan bekerja di Seoul. Ia belajar seni visual dan teori feminis di Ewha Womans [sic] University (BFA, MFA, dan DFA) di Korea Selatan dan University of Leeds (MA). Dia tertarik pada bagaimana sikap individu anonim menghadapi peristiwa di dunia untuk membuatnya menjadi perlawanan, sejarah, dan pandangan politik. Dia percaya bahwa, dengan terus-menerus mengkaji ulang metodologi feminis-queer, praksis artistik yang secara bersamaan estetis dan politis adalah mungkin.

Selain visual, Jeung bekerja lintas genre, seperti musik, film, dan pertunjukan. Perkembangannya terutama melalui pameran besar di Asia seperti *Tradition (Un)Realized* (2014), G*hosts, Spies, Grandmothers: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Discordant Harmony* (2015, 2016),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2015-16), *Gwangju Biennale* (2016), *Taipei Biennial* (2017), *Shanghai Biennale* (2018), *Tokyo Performing Arts Market (TPAM)—Performing Arts Meeting di Yokohama* (2014, 2018), *Serendipity Art Festival* (2018) dan *Eksperimen Kyoto* (2019). Dia telah menerima Penghargaan Seni Yayasan Hermes 2013, Hadiah Seni Sindoh 2015, dan Hadiah Artis Korea 2018 dan berpartisipasi dalam pameran di Paviliun Korea di *Venice Biennale* 2019.

이몸이야
Humble as I am

이내 청춘 더러우리
My youth is not tainted

Born in 1974 in Incheon, South Korea, siren eun young jeung currently lives and works in Seoul. She studied the visual arts and feminist theory at Ewha Womans [sic] University (BFA, MFA, and DFA) in South Korea and the University of Leeds (MA). She is interested in how the seething desires of anonymous individuals encounter events in the world and become resistance, history, and politics. She believes that, by ceaselessly reexamining feminist-queer methodology, artistic praxis that is simultaneously aesthetic and political is possible. Her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the "Dongducheon Project" (2007-2009) and the "Yeoseong Gukgeuk Project" (2008-present), and she works across genres including art, film, and performance. She has grown mainly through major exhibitions in Asia such as "Tradition (Un)Realized" (2014), "Ghosts, Spies, Grandmothers: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4), "Discordant Harmony" (2015, 2016), Asia Pacific Triennial of Contemporary Art (2015-16), Gwangju Biennale (2016), Taipei Biennial (2017), Shanghai Biennale (2018), Tokyo Performing Arts Market (TPAM)—Performing Arts Meeting in Yokohama (2014, 2018), Serendipity Art Festival (2018) and Kyoto Experiments(2019). She has received the 2013 Hermes Foundation Art Award, 2015 Sindoh Art Prize, and 2018 Korea Artist Prize and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in the Korean Pavilion at the 2019 Venice Biennale.

SIREN EUN YOUNG JEUNG / 세이렌 은영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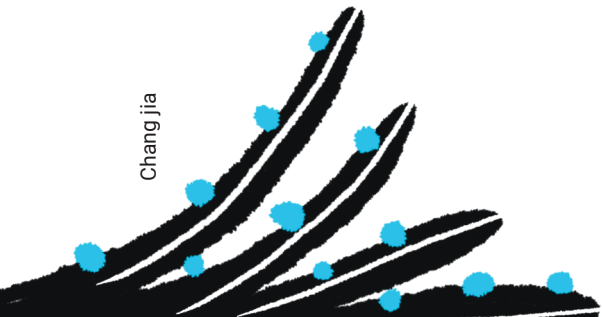
1974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태어난 세이렌 정은영은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다. 한국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와 영국의 리즈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시각 예술과 페미니스트 이론에 받았다. 주로 어떻게 익명인들의 들끓는 욕망이 세상의 사건들과 마주치고 저항, 역사, 그리고 정치가 되는가에 관심이 많다. 세이렌은 끊임없이 페미니스트의 방법론을 재검토함으로써, 미적, 정치적 요소를 동시에 갖춘 예술적 프랙시스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대표작으로는 '동두천 프로젝트'(2007-2009)와 '여성국극 프로젝트'(2008-현재)가 있으며, 예술, 영화, 공연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2014년 '전통(Un)현실화', 2014년 '고스트, 스파이, 할머니: 세마 비엔날레 메디아시티 서울', 2015, 2016년 '디스코던트 하모니', 2015- 2016년에 '아시아 태평양 현대미술 트리엔날레', 2016년 광주 비엔날레, 2017년 타이페이 비엔날레, 2018년 샹하이 비엔날레, 2014, 2018년 도쿄 공연예술시장 (TPAM) - '공연 예술 회의', 2018년 세렌디피티 아트 페스티벌, 그리고 2019년 교토 엑스페리먼트 같은 아시아의 주요 전시회를 통해 성장했다. 2013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2015년 신도 미술상, 2018년 대한민국 예술가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했다.

Chang jia

Lahir di Seoul pada tahun 1973, Chang Jia menyelesaikan pendidikannya untuk memperoleh gelar MA dan BFA di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Dia berpartisipasi dalam 9 pameran tunggal dan 80 pameran kelompok di Korea dan negara lain.

Chang Jia banyak mempersoalkan ketubuhan untuk mengatasi tabu sosial dalam setiap karyanya. Ia mempresentasikan itu melalui pertunjukan, video, instalasi, dan fotografi. Dia ingin menarasikan tubuh sebagai sistem sensorik dan esensi terdalam seseorang, bukan sebagai produk budaya yang mencerminkan pandangan sosial.

Sejumlah pameran yang pernah ia ikuti, antara lain *'Atlantic Project' Royal William Yard Plymouth (2018)*, *Korea Artist Priz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4). Sebagai pengakuan atas aktivitasnya, ia menerima Hadiah Doosan Yoyang pada tahun 2012, dan terpilih menerima Penghargaan Artis Tahun Ini di Museum Nasional Seni Modern dan Kontemporer pada 2014.



고리형 혈관매듭기

일반 고리형 혈관기와 마찬가지로 혈관을 길게 뽑을 때 사용되었고 최대한 길게 뽑혀진 혈관을 마무리할 때 매듭지어 묶는데 이용하였다. 혈류를 차단하면서 오는 통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혈관의 매듭은 당시 여인들의 유행하는 머리스타일이 반영되었다.

두개골 절개도구

캠버스 형태로 고안된 측정, 절개도구로써 갈축을 끼워 원하는 크기의 원으로 두개골을 절개할 수 있다. 질을 이용해 뇌를 자극하는 고문에서 두개골 절개용으로 사용되었다.

고리형 혈관기

Spermatic cord hood가 근육과 피부로 인한 시야확보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고리형 혈관기의 경우 혈관을 길게 뽑아 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중간에 혈관이 끊기게 되면 고문을 진행할 수 없어 곧 사망하므로 혈관을 길게 뽑는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고난도의 기술이다. 영긴 혈관을 잘 품게 되면 끊기지 않고 2M까지 뽑아 낼 수 있다.

안구 적출기

손잡이 캄로 안구의 혈관들을 자르고 도구의 둘근 면으로 안구를 꺼낼 때 사용한다.

가죽도 1

인체의 모든 피부에 사용가능하며 뾰족한 칼끝으로 절단부위에 미리 선을 그은 후 그 위를 칼날로 따라 긋는다. 손잡이의 고리에 다양한 칼들을 연결시켜 빠른 고문을 진행하는데 자주 이용된다.

고리형 혈관매듭기

일반 고리형 혈관기와 마찬가지로 혈관을 길게 뽑을 때 사용되었고 최대한 길게 뽑혀진 혈관을 마무리할 때 매듭지어 묶는데 이용하였다. 혈류를 차단하면서 오는 통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혈관의 매듭은 당시 여인들의 유행하는 머리스타일이 반영되었다.

두개골 절개도구

캠버스 형태로 고안된 측정, 절개도구로써 갈축을 키워 원하는 크기의 원으로 두개골을 절개할 수 있다. 침을 이용해 뇌를 자극하는 고문에서 두개골 절개용으로 사용되었다.

코 절단기

고리모양의 구멍에 코를 넣은 후 순간적인 속도로 밑에서 위로 잡아당김으로써 절단하는 절단기이다.

태형도구 1

앉은 채로 포박된 죄인의 허벅지를 가격하는 도구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나뉘지는 5형중에 가장 가벼운 고문이다. 그러나 금속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피부 닿는 면이 넓어 몇 번의 매질에도 허벅지 살이 터지게 된다.

가죽도 2

인체의 모든 피부에 사용가능하며 뾰족한 칼끝으로 절단부위에 미리 선을 그은 후 그 위를 칼날로 따라 긋는다. 정교하고 섬세한 고문에 사용하였다. 얇고 세밀한 조직을 박리할 때도 사용하였다.

고리형 혈관기

Spermatic cord hood가 근육과 피부로 인한 시야확보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고리형 혈관기의 경우 혈관을 길게 뽑아 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중간에 혈관이 끊기게 되면 고문을 진행할 수 없이 곧 사망하므로 혈관을 길게 뽑는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고난도의 기술이다. 엉킨 혈관을 잘 풀게 되면 끊기지 않고 2M까지 뽑아 낼 수 있다.

안구 적출기

손잡이 칼로 안구의 혈관들을 자르고 도구의 둥근 면으로 안구를 꺼낼 때 사용한다.

봉침

뾰족한 부분을 귀에 끼운 후 안으로 점점 밀어 넣는 도구이다. 공포감을 주는데 효과적이라 도구만 보여줘도 모든 죄인의 자백을 받을 만큼 무시무시한 도구이다.

태형도구 2

두 팔을 뒤로 묶은 후 팔뚝을 가격하는 도구이다. 죄의 경중에 따라 나뉘지는 5형중에 가장 가벼운 고문이다. 팔뚝부위는 매우 여리고 고통에 민감한 부위이므로 시각적 효과보다는 직접적인 통증을 유발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다.

가죽가위

고문에서 사용되는 가위는 주로 노인들의 피부가죽을 절단할 때 사용하거나 관중들 앞에서 여성의 머리를 삭발할 때 사용한다. 마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절단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 섬세함을 요구하는 고문이거나 고급 기술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톱기 손잡이형 절제기

보편적인 피부 절제기로 사용가능하고 반대쪽 손잡이에 톱니모양 칼이 있어 조직이나 피부 밖으로 혈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톱기로 인해 조직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장시간의 고문이나 섬세함을 요구할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안구반사경1

원래는 둥근 면에 반사거울이 장착되었으나 유실되었다. 시각을 벗어난 부위를 들여다보는 오늘날의 반사경과는 사용법이 다르다. 거울을 통해 햇빛에 반사된 빛을 눈동자에 닿게 한다. 대낮의 태양광은 2시간 내로 실명하게 만들고 빛에 의해 눈이 마비되어 있을 때 칼끝으로 동공을 도려낸다.

달금기

뜨거운 석쇠에 달궈진 달금기를 절개된 내부 장기 안에 넣는다. 장기의 직접적인 손상보다 주변 피가 응고되면서 혈관을 막아 곧 사망하게 한다.

도끼형 근육분리기 1

근육의 섬유를 분리시키는 도구이다.
근육의 결 방향으로 도구를 긁어 내리면 1.2mm의 두께까지 근육섬유를 분리할 수 있다. 신경을 살린 상태에서 가능하므로 그 고통은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체 피부분리기

굽어진 칼의 넓은 면은 특히 하체의 허벅지 피부를 근육과 분리시키기에 유용하다. 고리엔 크기 별로 분리기를 끼워 고문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손가락, 발가락 절단기

고리모양의 구멍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넣어 하나씩 순간적인 속도로 잡아당김으로써 절단하는 절단기이다. 신체를 분리하는 단계에 따라 손가락과 발가락의 뼈마디마디를 절단하는데 이용되었다. 주로 자백을 받거나 죄질이 나빠 장시간의 고문을 해야 할 때에 사용되었다.

안구반사경2

원래는 둥근 면에 반사거울이 장착되었으나 유실되었다. 시각을 벗어난 부위를 들여다보는 오늘날의 반사경과는 사용법이 다르다. 거울을 통해 햇빛에 반사된 빛을 눈동자에 닿게 한다.

장기집게

갈비뼈 깊숙한 곳에 있는 내부장기를 적출할 때 집게로 사용되거나 장기를 조여 압박을 줄 때도 사용한다. 현재 사용되는 Pennington Forceps- 삼각겸자와 형태는 다르나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폐를 조여 압박하여 호흡에 장애를 준다. 걸개부분을 벌려 고정시킬 때도 사용한다. 시야확보에 좋고 기계적 힘이 강하다.

도끼형 근육 분리기 2

근육의 섬유를 분리시키는 도구. 근육의 결 방향으로 긁어 내리면 1.2mm의 두께까지 근육섬유를 분리 할 수 있다. 신경을 살린 상태에서 가능하므로 그 고통은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손잡이 끝의 고리에 작업 시 필요한 다른 도구들을 연결하여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다.

손톱, 발톱 해라

손톱과 발톱의 피부 사이에 끼운 후 정으로 가격하며 분리하는 도구이다. 시대를 떠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20개의 해라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강이용 해라

정강이뼈를 골절시키는데 사용하는 해라이다. 주로 정강이의 원하는 부위에 해라를 위치한 후 정으로 쳐서 사용한다. 피부를 절개한 후 뼈에 직접 사용하기도 한다.

혀 인두

도구의 넓적한 면을 불로 달궈 혀를 지지는데 사용되었다. 지져진 혀는 도구의 독특한 문양이 낙인이 되어 평생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의 기능도 한다. 혀를 가상자리의 날카로운 톱기의 칼날을 이용해 절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주로 정치적인 문제의 발설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된 신체를 상해하는 방식이다.

내장 천공기

보통은 혈관을 들어올릴 때 사용하나 고문으로 이용할 땐 내부장기에 달궈진 집게로 구멍을 뚫는다. 생각보다 통증은 적으나 천공으로 인해 공기가 들어가 서서히 사망하게 하는 도구이다.

도끼형 근육 분리기 3

근육의 섬유를 분리시키는 도구. 근육의 결 방향으로 긁어 내리면 1.2mm의 두께까지 근육섬유를 분리할 수 있다. 신경을 살린 상태에서 가능하므로 그 고통은 기술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CHANG jia was born in Seoul in 1973 and completed her graduate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participated in 9 Solo exhibitions and 80 group exhibitions at Korea and other contry. As an important exhibition is 2018 'Atlantic Project' Royal William Yard Plymouth, UK: 2014 'Korea Artist Prize 2014'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05 'Enclosed', CONTEMPORARY MEDIA ART SCREENING, British Museum,UK, : 2000 "Total global',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Basel, Swiss.
In recognition of her activities, she received the Doosan Yongang Prize in 2012, and was selected as the Artist of the Year award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2014.

장지아

장지아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을 마쳤다. 한국과 외국에서 9개의 솔로 전시회 열리고 80개의 단체 전시회에 참가했다. 특히, 2018년에 영국 로얄 윌리엄 야드 플리머스 '애틀랜틱 프로젝트', 2014년에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예술가상', 2005년에 대영박물관, 영국 '인클로즈드' 컨템포러리 미디어 아트 상영, 2000년에 바젤현대미술관, 스위스 "Total Global", 등은 장지아의 가장 중요한 전시회 중 몇 개로 여겨진다.

예술 활동을 인정받아, 2012년 두산 용강상을 수상하고, 또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되었다.

Ampannee Satoh

Lahir pada tahun 1983 di Pattani, Thailand, Ampannee saat ini menetap di Pathum Thani, Thailand. Karyanya banyak membicarakan tentang identitas budaya, kebangsaan, keyakinan dan individualitas berangkat dari pandangan lokal di wilayah tanah airnya. Karyanya terdiri dari berbagai media, termasuk fotografi dan video.

Di antara pameran tunggal Satoh adalah *The Light 24:31*, Pattani Artspace, Pattani, Thailand (2018), *Lost Motherland,* A+ Works of art, kuala Lumpur (2018), dan *Burqa 2010*, Galeri Foti Kathmamandu, Bangkok (2011). Karyanya juga pernah ditampilkan dalam pameran kelompok seperti *Re/form/ing Patani*, Bangkok Biennial (2018); *Seekor Binatang, Dewa, dan Garis*, Museum Seni Modern, Warsawa; TS1 Yangon, Myanmar; Situs Para, KTT Seni Hong Kong dan Dhaka (2018); Patani Semasa, Galeri Ilham, Kuala Lumpur (2018). Satoh meraih gelar BFA di bidang Fotografi dari Rangsit University, Thailand (2006); sertifikat Seni Rupa Fotografi dari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la Photographie, Arles, Prancis (2010) dan gelar MFA dalam Pendidikan Seni Rupa dari Silpakorn University, Bangkok (2013).

Born in 1983 in Pattani, Thailand, Ampannee is currently based in Pathum Thani, Thailand. Ampannee Satoh's work examines cultural identity, nation state, faith and individuality by bringing focus to traditional subjects in the Pattani region of Thailand, her homeland. Her work comprises a wide range of mediums, including photography and video.

Among Satoh's solo exhibitions are The light 24:31, Patani Artspace, Pattani, Thailand (2018); Lost Motherland, A+ Works of Art, Kuala Lumpur (2018); Pondok, In_t_af Gallery, Pattani (2015) and Burqa 2010, Kathmandu Photo Gallery, Bangkok (2011). Her work has also been shown in group exhibitions such as Re/form/ing Patani, Bangkok Biennial (2018); A Beast, a God, and a Line, Museum of Modern Art, Warsaw; TS1 Yangon, Myanmar; Para Site, Hong Kong and Dhaka Art Summit (2018); Patani Semasa, Ilham Gallery, Kuala Lumpur (2018).

Satoh holds a BFA in Photography from Rangsit University, Thailand (2006); a certificate in Fine Art Photography from L'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la Photographie, Arles, France (2010) and an MFA in Visual Arts Education from Silpakorn Universtiy, Bangkok (2013).

암파니 사토

1983년 태국 파타니에서 태어난 암파니는 현재 태국 파툼타니에 살고 있다.
암파니의 작품은 자기의 조국인 태국의 파타니 지역의 전통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화적 정체성, 국가, 신앙 그리고 개성을 고찰한다. 주로 작품은 사진과 비디오를 포함한 광범위한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
암파니의 솔로 전시회 중에는 2018년에 '더 라이트 24시

31분', 파타니 아트스페이스, 태국 파타니; 2018년에 '잃어버린 조국', A+ 아트 오브 아트, 쿠알라룸푸르; 2015년에 'Pondok', 인_t_af 갤러리, 파타니와 2011년에'부르카 2010', 카트만두 사진 갤러리가 있다. 또는, 단체 전시회에서도 작품 전시하며 2018년에 'Re/form/ing Patani', 방콕 비엔날레; 2018년에'귀물, 신과 선' 바르샤바 현대미술관, 미얀마 TS1 양곤, 파라 사이트, 홍콩과 다카 아트 서밋; 'Patani Semasa', 일함 갤러리, 쿵알라 룸푸르 등의 전시되었다.

암파니는 2006년에 태국 랑싯 대학교에서 사진학 학사 학위로 졸업하고 있고 2010년에 아를, 프랑스의 L'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la Photographie에서 미술 사진학 자격증을 받으며, 2013년에 방콕 실파콘 대학교에서 시각 예술 교육 석사 학위로 졸업했다.

Sao Sreymao

Sao Sreymao lahir pada tahun 1986 di kamp pengungsian situs 2, di perbatasan Thailand. Ia menamatkan pendidikan di Phare Ponleu Selpak School of Visual and Applied Arts, Provinsi Battambang pada tahun 2006. Ia juga menjadi peserta Kelas Seni Kontemporer Sa Sa Art Projects tahun 2016. Praktiknya yang multidisipliner melibatkan karya lukis, komik, fotografi, gambar digital, patung, dan pertunjukan. Karya-karyanya mengeksplorasi ekspresi dan memori personal, serta perubahan lanskap fisik dan psikologis masyarakat urban dan rural Kamboja. Ia juga telah berkolaborasi dengan berbagai penulis dalam karya penceritaan visual dan menerbitkan beberapa novel grafis.

Pameran tunggal Sao Sreymao di antaranya “Under the Water” di Mirage Contemporary Art Space, Siem Reap, Kamboja dan Nargakot, Nepal (2019) serta “Under the Water” di Sa Sa Art Projects, Phnom Penh, Kamboja (2018). Beberapa di antara pameran kelompok dan pertunjukan terbaru yang melibatkannya adalah “Currents - Phnom Penh Art & Urban Festival”, Hiroshima House, Phnom Penh, Kamboja (2019); “Plastic Kingdom”, Meta House, Phnom Penh; “Day Dream”, Khmer Sense, Phnom Penh (2018); “Body of Sorrow”, Sa Sa Art Projects (2018); “Facing the Climate Change”, Kementerian Lingkungan Kamboja (2018) dan Kedutaan Swedia (2017); serta “Kraanh Norneal”, Sa Sa Art Projects,

Phnom Penh, Kamboja (2017). Pada tahun 2020, ia menjadi finalis di ajang Sovereign Art Award.

Sao Sreymao was born in 1986 in Site 2 refugee camp, Thai border. She graduated from Phare Ponleu Selpak's School of Visual and Applied Arts, Battambang province in 2006, and was a participant of Sa Sa Art Projects' Contemporary Art Class in 2016. Her multidisciplinary practice includes painting, comic, photography, digital drawing, sculpture and performance. Her works explore personal expression and memories, as well as the chang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landscapes of Cambodian urban and rural communities. She has also collaborated with various writers in visual storytelling and published a number of graphic novels.

Sao Sreymao solo exhibitions include Under the Water, Mirage Contemporary Art Space, Siem Reap, Cambodia and Nagakot, Nepal (2019) and Under the Water, Sa Sa Art Projects, Phnom Penh, Cambodia (2018). Her most recent group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include Currents - Phnom Penh Art & Urban Festival, Hiroshima House, Phnom Penh, Cambodia (2019); Plastic Kingdom, Meta House, Phnom Penh; Day Dream, Khmer Sense, Phnom Penh (2018); Body of Sorrow, Sa Sa Art Projects (2018); Facing the Climate Change,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Cambodia (2018) and Embassy of Sweden (2017); and Kraanh Norneal, Sa Sa Art Projects, Phnom Penh, Cambodia (2017). In 2020, she was finalist for Sovereign Art Award.

사오 스레이마오

사오 스레이마오는 1986년에 태국 국경의 2번지 난민촌에서 태어났다. 2006년에 바탐방주 파레 폰류 셀팍의 시각 및 응용 예술 학교를 졸업하며 2016년에는 Sa Sa Art Projects의 현대 미술 수업에 참가하였다. 회화, 만화, 사진, 디지털 드로잉, 조각, 퍼포먼스 등 다학문적인 예술 기법 이용한다. 주로 작품들에 캄보디아 도시와 시골 지역의 변화하는 신체적, 심리적 풍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표현과 기억을 담고 있다. 또한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에서 다양한 작가들과 협력했고 많은 그래픽 노블을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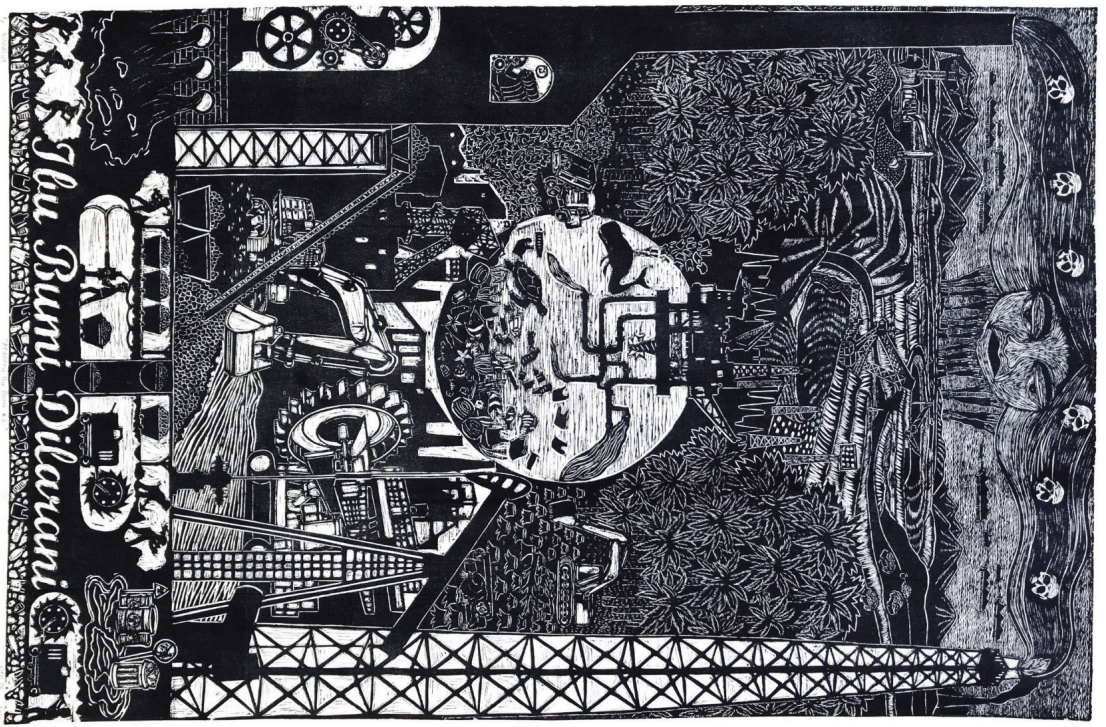
사오 스레이마오의 솔로 전시회는 2019년에 미라주 현대미술공간, 시엠립, 캄보디아; 나가꽛, 네팔에서 열린 ‘수면 아래’ 전시회, 그리고 2018년에 Sa Sa Art Projects,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열린 ‘수면 아래’, 등이 여겨진다. 가장 최근의 단체 전시회와 공연는 2019년에 히로시마 하우스,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열린 ‘Currents - 프놈펜 아트 & 어번 축제’, 2018년에 메타 하우스, 프놈펜에서 열린 ‘플라스틱 왕국’과 크메르 센스, 프놈펜에서 열린 ‘데이드림’, 2017, 2018년에 스웨덴 대사관과 캄보디아 환경부에서 열린 ‘기후 변화에 직면한다’, 2017년에 Sa Sa Art Projects, 프놈펜, 캄보디아에서 열린 ‘Kraanh Norneal’이 있다. 2020년에 소버린 미술상 최종 후보였다.

Fitri DK

Fitri adalah pekerja seni dari Yogyakarta. Selain itu, ia adalah seorang perupa yang menggunakan teknik seni grafis (seperti ukiran kayu dan etsa) untuk mengutarakan kritik dan berdialog mengenai isu-isu sosial dan lingkungan. Fitri berkomitmen untuk mengedepankan isu-isu seputar perempuan melalui seni dan musik, serta secara konsisten menjadi suara perempuan yang lantang di tengah budaya yang sangat patriarkis. Fitri ialah anggota komunitas SURVIVE! Garage, kolektif seni Taring Padi, dan vokalis grup band Dendang Kampungan. Aktivismenya mencakup keterlibatan langsung dalam advokasi dan gerakan politik bersama para petani, komunitas perempuan, buruh, dan kelompok-kelompok marginal lainnya.

Fitri DK aktif terlibat dalam berbagai pameran baik di Indonesia maupun luar negeri, termasuk di antaranya Jogja Arts Festival, Pameran Nandur Srawung di Yogyakarta, Balai Seni Negara Kuala Lumpur Malaysia, Framer Framed di Amsterdam (Belanda), 16 Albermale Australia, dan lain-lain.

Fitri is an art worker from Yogyakarta. Fitri is also a visual artist who uses graphic art techniques (such as hardboard cuts and etchings) to critique and dialogue on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Fitri is committed to raising women's issues through art


Ilu Bumi Dilarani

Ibu Bumi Kang Ngadili

Ibu Bumi Wis Maringi

and music and consistently provides a strong female voice in an extremely patriarchal culture. Fitri is a member of SURVIVE! Garage community, Taring Padi art collective, and vocalists of the band Dendang Kampungan. Her activism includes direct involvement in advocacy and political movement where she fights together with farmers, women's community, labor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Fitri DK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various exhibitions in Indonesia and abroad, including Jogja Arts Festival, Nandur Srawung Exhibition in Yogyakarta, Balai Seni Negara Kuala Lumpur Malaysia, FramerFramed in Amsterdam, The Netherlands, 16 Albermable Australia, and many others.

피트리 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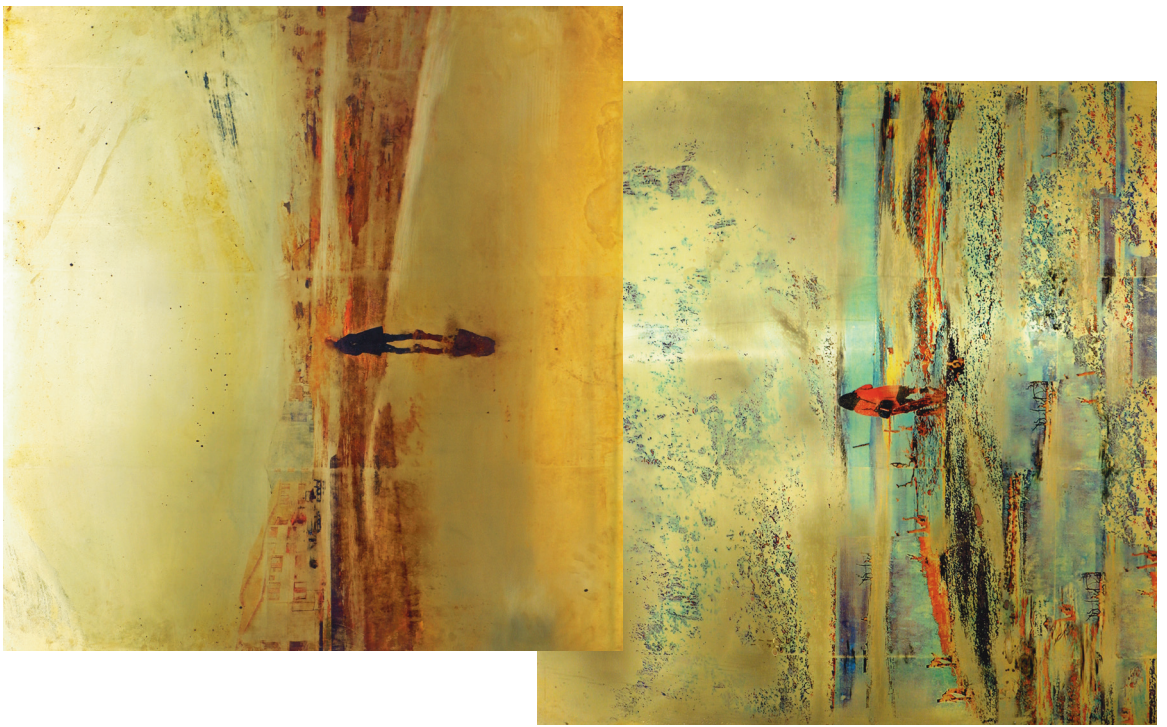
피트리는 족자카르타 출신의 예술가이며 그래픽 아트 기법, 목판화, 등을 이용하여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비평과 대화를 열리는 예술가이다. 피트리는 예술과 음악을 통해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극도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강한 목소리를 제공한다. 또한, Surviv! Garage 커뮤니티, Taring Padi 아트 단체, Dendang Kampungan 밴드의 보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운동가로써, 피트리가 농부, 여성 사회, 노동자와 다른 소외된 집단들의 정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참여한다.

피트리는 족자 아트 페스티벌, 족저카르타 Nandur Saung 전시회, Balai Seni Negara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프라머프라메드, 호주의 16Albermarle 갤러리 등 인도네시아와 해외에서 열린 다양한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Etza Meisyara

(Lahir 1991 di Bandung) Etza Meisyara adalah seniman multimedia, seorang lulusan Seni Rupa dari Institut Teknologi Bandung, yang menaruh perhatian pada isu konversi dimensi artistik dalam kaitannya dengan ilmu pengetahuan dan teknologi. Karya-karyanya kerap melibatkan bunyi, instalasi, pertunjukan, dan seni rupa. Ia adalah penerima penghargaan Young Creator (juara kedua) dari Tokyo Design Week 2015. Ia kerap berpartisipasi dalam berbagai pameran atau pertunjukan multimedia baik di tingkat nasional maupun internasional. Ia berkesempatan menjalani residensi di beberapa kota di Eropa, seperti Paris dan London, yang memperluas praktik dan wawasannya mengenai isu migrasi, kampung halaman dan perasaan terikat, serta pertanyaan-pertanyaan seputar perbatasan dan masyarakat.

Etza telah ambil peran dalam banyak pameran seperti ArtJog (2019), Indonesian Women Artists: Into the Future (2017), dan pameran seniman perempuan di Gadjah Gallery, Yogyakarta. Ia menggelar pameran tunggal pada tahun 2018 dengan tajuk “Passing By” di Lawangwangi Creative Space, Bandung, Indonesia.



(b.1991, Bandung) Etza Meisyara is a multimedia artist, a Fine Arts graduate at the Bandung Institute of Technology, who is concerned with the issue of conversion, which is studied, in the artistic dimension relating to science and technology. Her works are often sounds, installations, performance, and visual arts. She is the recipient of the Young Creator (2nd Winner) award from Tokyo Design Week 2015. She has often participated in exhibitions or multimedia performance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She joined residency in some cities in Europe such as Paris and London that expand her practices and issues to migration, home and belonging, also questions of borders and community.

Etza has joined many exhibition such as ArtJog (2019), Indonesian Women Artists: Into the Future (2017), women artist exhibition at Gadjah Gallery, Yogyakarta. Her solo exhibition was held in 2018, titled "Passing By" in Lawangwangi Arts Space in Bandung, Indonesia.

엣자 메이샤라

1991년에 반둥에서 태어난 엣자 메이샤라가 반둥 공과대학에서 미술 전공으로 졸업하며 과학과 기술과 관련된 예술적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는 전환 문제에 관심이 많은 멀티미디어 예술가이다. 주로 작품은 소리, 설치, 공연, 시각 예술로 여겨진다. 2015년에 엣자가 도쿄 디자인 위크에서 영 크리에이터 (2등) 수상하였다. 그리고, 많은 국내외 전시회나 멀티미디어 공연에 참여해왔다. 파리, 런던, 등 몇몇 유럽 도시에서 레지던시 하면서 이주, 집과 소속 문제, 국경과 지역사회 이슈에 대해 작품에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엣자는 아트조그 (2019), 인도네시아 여성 예술가: 미래로 (2017), 족자카르타 카자 갤러리에서 열린 여성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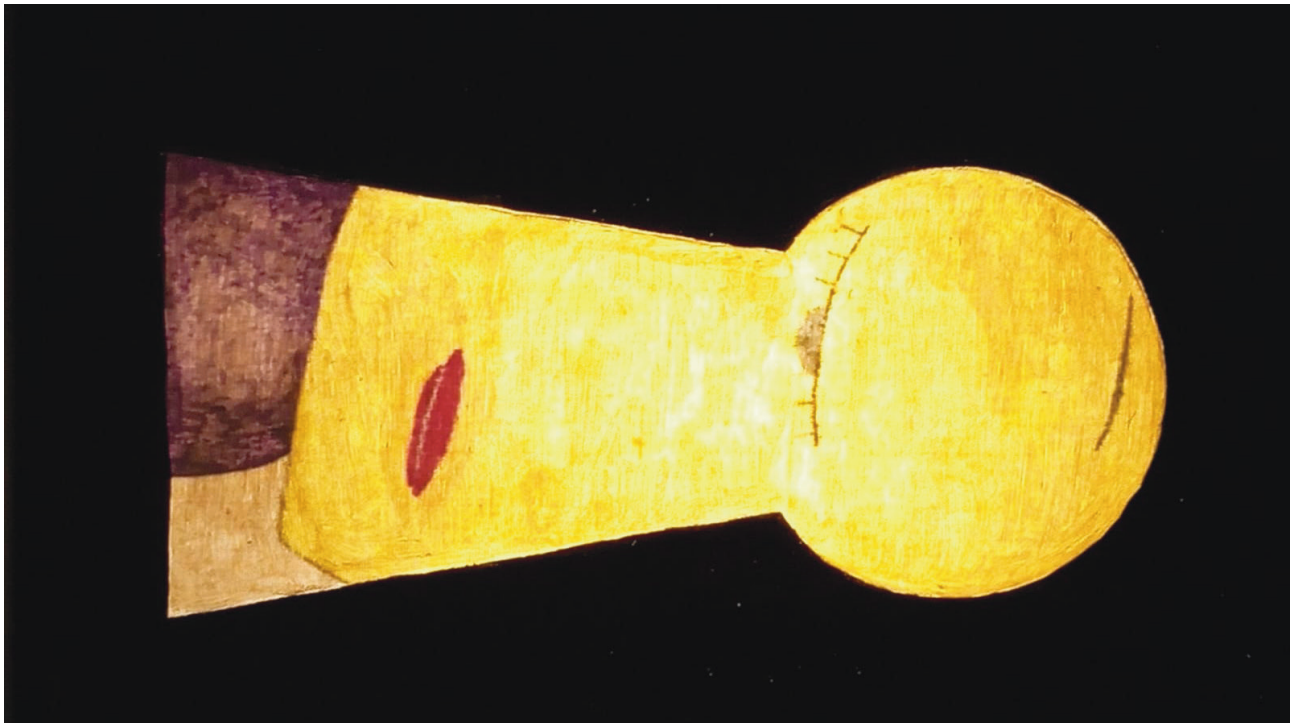
등 많은 전시회에 참여해왔다. 솔로 전시회는 2018년에 인도네시아 반둥의 Lawangwangi 아트 스페이스에서 “지나가다”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Agnes Christina

Agnes Christina ialah seniman multidisipliner yang tertarik pada percakapan mengenai pergulatan yang dihadapi manusia dalam kehidupan sehari-hari, utamanya cara mereka berhadapan dengan pergulatan itu. Berfokus pada ritme yang diciptakan manusia dalam hidup sehari-hari, Agnes menghadirkan temuannya, utamanya melalui pertunjukan dalam kolaborasi dengan media lain seperti film dan lukisan. Dalam karyanya, ia berinteraksi dengan beragam isu seperti identitas dan kampung halaman, sejarah, serta tubuh dan feminisme. Sejak beberapa tahun terakhir, ia meneliti Centini, salah satu literatur berbahasa Jawa paling populer mengenai perempuan dan seksualitas. Ia juga mentransformasi tulisan tersebut ke dalam bentuk naskah dan pertunjukan teater.

Geraknya yang dinamis untuk berpindah-pindah dari karya pertunjukan, teater, sastra, dan seni rupa menuntunnya untuk menekuni semua bidang tersebut, serta tampil di banyak festival dan ruang teater seperti Kedai Kebun, Salihara, dan lain-lain. Dalam skena pameran, ia juga terlibat di ArtJog 2019, Pra-Biennale Jogja 2019, dan banyak lagi.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BE THE MAJ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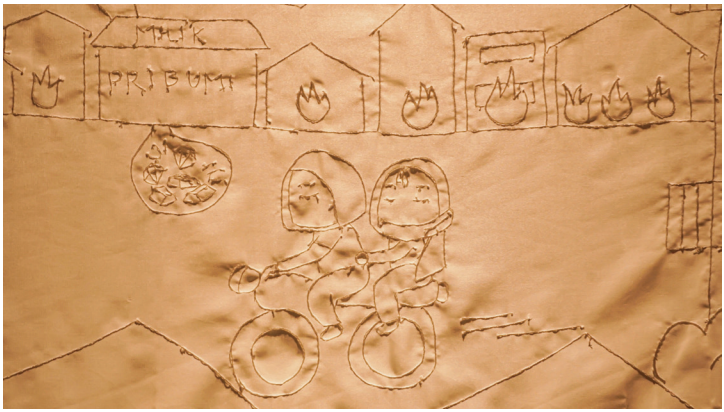
Agnes Christina is a multidisciplinary artist who is interested in the struggle that people face in life and most importantly how they deal with the struggle. Focusing on the rhythm that is created by humans in everyday life, Agnes presents her findings mostly through performances that collaborate with other media such as film and painting. She works with various issues such as identity and home, history, body and feminism, among others. Since few years, she has been researching on Centini, one of most popular Javanese writing on women and sexuality and transformed that into scripts and theater performance.

Her fluid moves between performance, theater, literature and visual arts had brought her to work in both fields; performing in many festivals and theater space such as Kedai Kebun, Salihara and others. While in exhibition scene she was participated in Art Jog in 2019, Pra Biennale Jogja in 2019 and many others.

아그네스 크리스티나

아그네스 크리스티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투쟁을 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다학제 예술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초점을 맞추어, 아그네스는 주로 영화나 그림 같은 미디어와 이용하며 공연을 통해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정체성과 가정, 역사, 신체, 페미니즘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였다. 몇 년 전부터, 여성과 성에 관한 가장 인기 있는 자바어 작품 중 하나인 센티니에 대해 연구해 왔고 그것을 대본과 연극 공연으로 변화시키다.

공연, 연극, 문학, 시각 예술 사이에 경계가 없는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며 Kedai



Kebun 축제나, Salihara 공연장 이러한 무대에 서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아트조그 전시회, 그리고 2019년 족자 비엔날레 사전 전시회 등에서도 참여하였다.